

● 전기협회, KEPIC 환경기술 세미나 성료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31일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충남 당진시 소재)에서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환경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환경규제 동향, 환경기술 표준 관련 기술, 정보 등의 제공과 함께 현장 기술자들 간의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발전부문은 선제적인 환경설비 도입 등을 통해 환경보존 의무에 충실해 왔으나 적절한 환경기술 표준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발표된 주제는 ▲수도권 대기 중장기 전략(특강) ▲당진화력 환경설비 및 9,10호기 건설현황 ▲막을 이용한 순수제조설비 소개 및 적용현황 ▲국내개발 10MW CO₂포집 파일럿 플랜트 설치 및 운용 ▲탈황·탈질·집진 분야 KEPIC 현황과 적용 ▲탈질설비 성능저하 원인 및 대책 ▲저급탄 사용의 환경설비 영향 ▲발전소 인근 지역 환경소음 영향 평가 등이 발표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표준 소개 및 관련 표준의 내용과 활용방법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등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펼쳐졌다.



● 한·중 전력기술 컨퍼런스 2013 성료

한·중 양국 간 전력기술 분야의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는 지난달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중국전력기업연합회(이사장 Liu Zhenya)와 공동으로 '한·중 전력기술 컨퍼런스 2013'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 전력산업계 주요인사와 전력산업계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기술에 관한 주제발표와 심도 깊은 토론이 펼쳐졌다.

주제발표는 우리 측에서 ▲문승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을 ▲윤용범 한전 전력연구원 처장이 '한국의 대규모 전력계통에 적용되는 대용량전력저장시스템'을 발표하였으며, 중국 측에서는 ▲Zhang Dongxia 국가전망공사 산하 전력과학연구원(Chin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부소장이 'Technology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Smart Grid in China'로 ▲Xu Guosheng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China Power Investment Corporation) 부국장이 'Achieve Low Carbon and Clean Development to Build a Beautiful China'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한편, 전기협회는 연례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며 전력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2013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12월 3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2013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과 한국전기규정(KEC) 제정을 위해 협회에서 조사·연구한 내용을 홍보하고, 일부 현안사항에 관한 전력산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발표 주제는 ▲2013년 주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안) 소개 ▲저압차단기 용도에 따른 기술기준 도입 방안 ▲한국전기규정(KEC) 제정(제1편 공통분야) ▲한국전기규정(KEC) 제정(제2편 저압 전기설비분야) ▲전기저장장치 기술기준 도입 방안 ▲태양광발전규정 제정 및 기술기준 도입 방안 ▲KS C IEC 60364에 의한 허용전류 적용 방안 등이다.

한편, 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9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62조 제5항 및 기술기준 운영요령에 의한 위탁기관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1월 25일까지 전기협회 기술기준처(02-3393-7667)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 영등포 공고, 전력기술교육원 입소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은평구 소재 대한전기협회 부설 전력기술교육원에서 영등포 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재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견학과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지난 5월 대한전기협회와 영등포공고 간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양 기관은 영등포공고 전기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생을 선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간 지중배전 등 다양한 실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미리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16일에는 다른 재학생 등 80여 명이 전력기술교육원을 방문, 현장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현장실습은 교육의 특수성과 협회의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수업에 쓰이는 자재비의 30% 정도만 수업비로 책정하였으며, 실습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수업비는 전액 협회에서 부담했다.

전기협회는 이번 교육이 전기업계를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